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8호 [부제 제25431호] 주제 105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회 보고를

로써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회 보고를 조선로동당 창건 71돐에 즈음하여 로써야 코니ਊ너이 미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발행식이 7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일성同志와 함께 경애하는 김정일同志의 대양상이 발행식

장성면에 모여 있었다.

백두산원승인들의 불후의

고령으로 작파를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사랑한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발행식장에 전시되어

있었다.

발행식에는 로써야 코니ਊ너이 미드출판사, 원선 및 현대성 단체의 인사들과 이 나라 주체

우리 나라 특별전원대사, 대사 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同志과 김정일同志의

대양상에 인사를 드렸다.

발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출판사 총사장 로보노브는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번 발행식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회 보고였

지난 시기 조선로동당이 이룩

한 성과와 퀄리티를

앞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보고를 출판함에 대해

매우 궁금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김정은동지

의 교작들을 계속 출판하여

로 조선계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과 문화교류 사업의 강화발전

을 위하여 온갖 사랑과 온정을 더

나온 원수님에 대한 사랑은 풍물과

사람을 넘어서는 정을 담고 있다.

우리들은 오늘 위대한 김일성同志과

김정은원수님께서 충현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사업

에 살아온 우리들의 평생업적을 밝혀내며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으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관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성의 보고를 헌물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

를 가지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충현의 민족교육이 나아

갈 길을 완전히 밝혀주시고 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

을 위하여 온갖 사랑과 온정을 더

나온 원수님에 대한 사랑은 풍물과

사람을 넘어서는 정을 담고 있다.

우리들은 오늘 위대한 김일성同志과

김정은원수님께서 충현의 민족교육사업

에 살아온 우리들의 평생업적을 밝혀내며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으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관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성의 보고를 헌물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

를 가지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충현의 민족교육이 나아

갈 길을 완전히 밝혀주시고 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

을 위하여 온갖 사랑과 온정을 더

나온 원수님에 대한 사랑은 풍물과

사람을 넘어서는 정을 담고 있다.

우리들은 오늘 위대한 김일성同志과

김정은원수님께서 충현의 민족교육사업

에 살아온 우리들의 평생업적을 밝혀내며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으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관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성의 보고를 헌물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

를 가지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충현의 민족교육이 나아

갈 길을 완전히 밝혀주시고 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

을 위하여 온갖 사랑과 온정을 더

나온 원수님에 대한 사랑은 풍물과

사람을 넘어서는 정을 담고 있다.

우리들은 오늘 위대한 김일성同志과

김정은원수님께서 충현의 민족교육사업

에 살아온 우리들의 평생업적을 밝혀내며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으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관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성의 보고를 헌물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

를 가지겠습니다.

##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우리들은 오늘 위대한 김일성同志과 김정은원수님께서 충현의 민족교육사업에 살아온 우리들의 평생업적을 밝혀내며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으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관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성의 보고를 헌물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가지겠습니다.

우리들은 주체위업과 더불어 세로운 사례단계에 들어선 제일조선인운동의 높은 요구에 맞게 학교안에 주체의 사상체계와 명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끌어들여 고교인 군대원을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제105기념 충현교육일군대회를 출발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흥보와 물품과 같은 결의를 암







# 재일조선인 중등교육실시 70돐기념 총련 교육일군 대회 진해

재일조선인중등교육실시 70돐기념 총련교육일군대회가 8일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에 모셔져 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고한 국유산인 민족교육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키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가르침대로 윤락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기어이 세로운 전진을 이루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대회에는 쇄증만 총련중앙사업위원회의 장과 부의장을,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본부 위원장들과 본부군, 제일본조선인교육회 회장, 제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단체, 사업계 일군들, 조선대학 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우서당, 청년 그리고 총련의 각급 학교 교장들, 간포지방 동포들과 부모들, 조선대학 학생들을 등 참가하였다.

애국가의 주역으로 시작된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보내온 축전이 광복된 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축전이 소개되었다.

허종만의 장기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해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끌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와 뜨거운 은정이 깊어졌다.

국가의 주역으로 시작된 대회에서는

민족교육 70년의 사랑찬로정을 강회깊이 풀이켜보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1946년 10월 5일 도쿄조선중학 교의 창립으로 재일조선인중등교육의 실시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해 12월

아버지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강령에서 한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에 우한히

고우진 재일동포들이 민족교육사업에 용약하고 일본 방방곡곡에 종학교, 고급 학교들을 일제세워 재일동포지내들을 위

한 중등교육체계를 완성시킨데 대해 언급

하였다. 그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에 걸음마다 위

따르는 협약한 일본땅에서 민족교육을 굳건히 지키고 승승장구시켜온 것은

우한에 대한 원수님들의 하해 같은 사랑과

복창적인 주체적인 민족교육에 관한 사상,

학회하고 세심한 평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에 걸음마다 위

따르는 협약한 일본땅에서 민족교육을 굳건히 지키고 승승장구시켜온 것은

우한에 대한 원수님들의 하해 같은 사랑과

복창적인 주체적인 민족교육에 관한 사상,

학회하고 세심한 평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평도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아버지 수령님의 복장상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친한

빛을 뿐이고 있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div

# 사상의 힘, 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혁명적당

여러 나라 정당, 단체, 기관  
대표 단들과 각계 인사들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충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1돐, 태도제국주의동맹 결성 9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 기관 대표단들과 각계 인사들이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였다.

위대한 김 일성同志께서 김정일동지와 함께 계시는 영상이 술작품에 물었다는 점을 하고 삶과 인사를 드리었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인 김 일성주석과 조선로동당의 제7차 대회를 통하여 김정은각하의 빙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행운을 비쳐오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불문의 의지를 다시금 온에게 계시하였다.

민주봉고동당은 당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업무를 관찰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무정에 면함을 지지와 함께 성장을 보낸다.

## 업적도 롬 진회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충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1돐, 태도제국주의동맹 결성 90돐에 즈음하여 여전히 끊임없이 통령을 위하여 헌신하는 김정은각하의 존엄을 위하여 모든것을 민대중에게 기여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꾸려나가고자신이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인 김 일성주석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단이인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 일성주석과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인 김 일성同志께서 김정일동지와 함께 계시는 영상이 술작품에 물었다는 점을 하고 삶과 인사를 드리었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인 김 일성주석과 조선로동당의 제7차 대회를 통하여 김정은각하의 빙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행운을 비쳐오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불문의 의지를 다시금 온에게 계시하였다.

민주봉고동당은 당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업무를 관찰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무정에 면함을 지지와 함께 성장을 보낸다.

## 조선 미국의 대조선제재 압박 소동을 규탄, 오바마행정부를 <승냥이 무리들>로 묘사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여전히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오바마대통령의 대조선제재 압박소동이 극한정에 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를 6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여전히 나에게 보도하였다.

트위터의 마쓰루신은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제재 압박소동을 규탄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그는 오바마행정부를 <승냥이 무리들>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제재와 압박, 고립정책을 위하여 있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후통<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이란의 일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통신, <인민일보>와 <민족통신>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전하였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못해 역할까지 두둔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가 나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에 우의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금을 낮추라고 강압적으

로 내리며 이어서 우리를 고집하면서 한반도를 쓰고 있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 풍력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바마행정부를 <승냥이 무리들>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제재와 압박, 고립정책을 위하여 있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후통<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이란의 일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통신, <인민일보>와 <민족통신>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전하였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못해 역할까지 두둔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가 나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에 우의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금을 낮추라고 강압적으

로 죄다 보려고 한반도를 쓰고 있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 풍력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바마행정부를 <승냥이 무리들>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제재와 압박, 고립정책을 위하여 있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후통<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이란의 일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통신, <인민일보>와 <민족통신>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전하였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못해 역할까지

두둔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가 나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에 우의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금을 낮추라고 강압적으

로 내리며 이어서 우리를 고집하면서 한반도를 쓰고 있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 풍력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바마행정부를 <승냥이 무리들>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제재와 압박, 고립정책을 위하여 있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후통<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이란의 일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통신, <인민일보>와 <민족통신>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전하였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못해 역할까지

두둔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가 나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에 우의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금을 낮추라고 강압적으

로 내리며 이어서 우리를 고집하면서 한반도를 쓰고 있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 풍력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바마행정부를 <승냥이 무리들>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제재와 압박, 고립정책을 위하여 있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후통<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이란의 일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통신, <인민일보>와 <민족통신>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전하였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못해 역할까지

두둔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가 나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에 우의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금을 낮추라고 강압적으

로 내리며 이어서 우리를 고집하면서 한반도를 쓰고 있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 풍력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바마행정부를 <승냥이 무리들>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제재와 압박, 고립정책을 위하여 있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후통<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이란의 일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통신, <인민일보>와 <민족통신>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전하였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못해 역할까지

두둔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가 나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에 우의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금을 낮추라고 강압적으

로 내리며 이어서 우리를 고집하면서 한반도를 쓰고 있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 풍력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바마행정부를 <승냥이 무리들>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제재와 압박, 고립정책을 위하여 있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후통<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이란의 일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통신, <인민일보>와 <민족통신>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전하였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못해 역할까지

두둔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가 나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에 우의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금을 낮추라고 강압적으

로 내리며 이어서 우리를 고집하면서 한반도를 쓰고 있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 풍력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바마행정부를 <승냥이 무리들>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제재와 압박, 고립정책을 위하여 있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후통<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이란의 일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통신, <인민일보>와 <민족통신>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전하였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못해 역할까지

두둔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가 나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에 우의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금을 낮추라고 강압적으

로 내리며 이어서 우리를 고집하면서 한반도를 쓰고 있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 풍력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바마행정부를 <승냥이 무리들>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제재와 압박, 고립정책을 위하여 있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후통<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이란의 일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통신, <인민일보>와 <민족통신>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전하였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못해 역할까지

두둔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가 나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에 우의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금을 낮추라고 강압적으

로 내리며 이어서 우리를 고집하면서 한반도를 쓰고 있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 풍력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바마행정부를 <승냥이 무리들>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제재와 압박, 고립정책을 위하여 있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후통<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이란의 일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통신, <인민일보>와 <민족통신>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전하였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못해 역할까지

두둔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가 나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에 우의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금을 낮추라고 강압적으

로 내리며 이어서 우리를 고집하면서 한반도를 쓰고 있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 풍력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바마행정부를 <승냥이 무리들>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제재와 압박, 고립정책을 위하여 있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후통<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이란의 일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통신, <인민일보>와 <민족통신>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전하였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못해 역할까지

두둔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가 나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에 우의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금을 낮추라고 강압적으

로 내리며 이어서 우리를 고집하면서 한반도를 쓰고 있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 풍력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오바마행정부를 <승냥이 무리들>로 묘사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제재와 압박, 고립정책을 위하여 있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하였다.

중국의 후통<대공보>, 봉황위성TV<방송>, 신화망, 이란의 일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통신, <인민일보>와 <민족통신>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전하였다.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자 못해 역할까지

두둔하는 미국으로부터 자가 나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에 우의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금을 낮추라고 강압적으

로 내리며 이어서 우리를 고집하면서 한반도를 쓰고 있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 풍력 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